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22 대현 스님 유고집 '아름답게 가는 길'



▶ 한줄 요약
생의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

생의 애착은 윤회의 씨앗





대현(大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남산정일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만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었다. 그러던 중 '위빠사나'를 만나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했다.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서 정진하던 중인 2020년 만성폐렴을 진단받고, 단식 수행을 통해 열반의 길을 열겠다고 결심했다. 〈대반열반경〉을 위주로 공부하고, 이 공부 내용과 스님 자신의 마지막 기록을 한데 엮어 〈아름답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줄 것을 유언했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 강설〉, 〈깨침 아리랑〉이 있으며,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를 기획, 감수했다.

"업연에 끌리어 오는 줄 모르고 온 인생이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습니다. 올 때는 비록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며 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의 봄 · 여름 · 가을을 지내고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접어들게 되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화두가 찾아들게 된다. 닥쳐오는 죽음을 어떻게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고해를 통과해야 할 숙제로 받은 이상 누구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자들'이다.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 회향이야말로 그가 닦아온 인생 전체가 투영되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스물두 살에 장성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남산정일(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한 대현 스님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 중이던 2020년 봄 만성폐렴을 진단받는다. 결핵균과 사촌격인 병균이 검출되었는데, 치료약이 매우 독하여 소화기능이 약한 스님으로서는 약을 복용하기조차 힘들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스님은 정말 두려움 없이 아름답게 가고 싶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이 묻자, 의사로부터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폐가 석화현상이 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체중이 점점 줄어들어 2, 3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세 시대에 이제 겨우 세수 75세인 스님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고심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란, 살아오는 동안 인연이 지어진 모든 분들과 기꺼이 작별할 줄 알고 마지막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까지도 벗어나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의 시작이다. …이 세상 올 때는 비록 오는 줄 모르고 왔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다.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가고 싶다. 수행자답게 굳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단식 수행으로 열반의 길을 선택하다

삼십대 젊은 날 단식 수행을 한 적이 있는 스님은 꿈을 꾸어도 꿈 속의 희로애락에 빠져들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저녁부터 눈을 뜨는 아침까지도 화두의정이 끊임없이 어어졌던 경험을 떠올리고는, 단식 수행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한다.

마지막으로 맞은 어느 봄날에는 마당가 화단에 꽃씨를 뿌리고 꽃을 사다가 심었다. 뒤안에는 산과 들에서 야생화를 캐다가 심었다. 마당의 잔디밭 잡초도 열심히 제거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신 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던 스님은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대반열반경〉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영적 힘을 지닌 부처님의 삶과 수행에 다시 한 번 큰 감동을 받았다.

세수 75세에 난치병 판정
연명치료 거부, 단식단행
수행에 대한 고별사 남겨

스님은 〈율장〉과 〈대념처경〉 등 다른 불경과 함께 엮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정리한다. 이후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 당신이 정리한 불경의 대의와 함께 당신이 장차 기록으로 남길 '단식 수행을 통한 열반의 길'을 한데 엮어서 당신의 입적 이후 49재 이전에 책으로 출간해 줄 것을 유언한다.

영정 사진과 수의까지 손수 준비해 놓고 2021년 8월 25일 단식을 시작한 스님은, 주변 사람들이 행여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불상사(?)를 염려한 끝에 단식 13일째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를 기록으로 남긴다.

"내가 집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든 쉬지 않고 있든,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조심스레 안아서 잠자리 시트에 눕혀두면, 조용히 숨을 거둘 것이오. 숨을 거두어 임종했다는 확신이 들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검시관과 함께 와서 본 뒤 그들이 사망확인진단서를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단식 19일째, 스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며 고요한 우주의 평화스러운 침묵에 전율을 느낀다. 무기의 혼침에 빠지지 않고 성성히 한 생각을 챙긴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식수행법을 포기하여 병원을 찾는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진통제 영양제로 고통을 잠재우는 일과 연명의 기약 없는 시간, 막대한 치료비, 꼴불견의 죽음 뿐일 것이다. 그러니, 고통이 더 따르고 힘들더라도 내 갈 길은 이 길뿐이다. 누가 안타까워하여 꼬일지라도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스님은 단식 29일 만인 9월 22일 오후 3시 무렵, 입적했다.

대현 스님, 고별사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중을 만들어 주시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은 은사 스님입니다. 은사 스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은혜, 세세생생에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심이 부족해 문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제들은 저를 사형으로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베푼 바가 없습니다. 이제야 내 자신이 인색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님은 훌륭한 수행력을 갖추지 못했고 덕망도 없는 저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주시었습니다. 무거운 시은만 지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잘 죽는 죽음일까?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과정이 두렵습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링거액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숨만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도인들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죽고, 죽기를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늘 신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몸은 공(空)하여 거짓 나이니 애착할 게 없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오니 어떻게 죽어야 잘 한 죽음일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성취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요, 만약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저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한 생각은 내세로 연결되어 금생의 수행력과 원력 따라 다음에도 수행자의 길을 걸어 쉽게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초학 시절 보름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식을 하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였더니 정신이 맑아져 화두가 성성적적 끊어짐이 없이 밤낮 이어짐을 체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 세상 떠날 때 단식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는 칠순이 훨씬 지났습니다. 백세까지 사는 세상이니 한참 못 미치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래 약골로 태어난 나로서는 많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절집에 들어온 지도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시은만 지고 있어 무거운 업만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일년 내내 감기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가래가 목구멍에 걸리어 괴롭고 기침이 심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백 년 이백 년 더 살다 간다고 해도 아쉽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지금 더 살려고 버둥댄다면 그것은 생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은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그 윤회의 씨앗인 애착을 버리고자 합니다. 좀 힘이 남아 있고 정신이 또렷할 때 단식을 하면서 마지막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올 때는 업연에 끌리어 오는 줄 모르고 왔지만 갈 때는 알아차림으로 한 생각 챙기면서 가는 줄 알고 가고 싶습니다. 올 때는 비록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며 가고자 합니다. 나를 억지로 병원으로 데려가 영양제를 놓고 음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중들께 짐 지워 드려 죄송합니다.

七十五年空幻身
칠십오 년을 살아온 허망한 이 몸
東西南北空自忙
이곳저곳 공연히 바삐 돌아다녔네
世緣已盡空手去 세상 인연이 다하여
빈손으로 가노니
白雲靑山空來去
백운이 청산에 공연히 왔다가네
大玄 合掌

〈끝〉 〈작가〉

2022년 파송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2. 28(화)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